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2017. 12.**

법원 사람들



GOOD BYE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맘때가 되면 괜스레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도 미련 없이 보내주자고요.
기다리는 새해가 희망 가득 안고 찾아올 테니까요.

Contents

2017 December vol. 392



Cover Story

이번호 표지 주인공들은
요가로 더 행복하게,
더 날씬하게 법원생활과
인생을 즐기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요가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발행일 2017년 12월 1일
통권 392호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편집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박가영, 송소현, 이경미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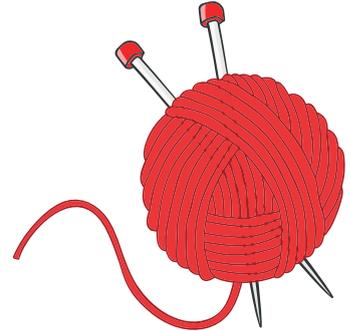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트위터 <http://twitter.com/scourtkorea>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기획·디자인·인쇄 (주)성우에드컴 전화 02)890-0900

소통으로
With Local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04 **프로로그**
 - 06 **법원 특! 특!**
부산 서부권의 사법 서비스, 이제 저희가 책임집니다
 - 10 **포토 카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요가 동호회
 - 12 **Tour**
해안 절경, 달동네 산책의 앙상블

공감으로
With Court

- 16 **핫 이슈**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설
- 18 **테마가 있는 글**
사랑골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상)
- 24 **나의 일 나의 삶**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보낸 1년
- 29 **법원으로서의 초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대법원 견학
- 30 **조사심의관 코너**
판결문의 비밀명처리



행복으로
With People

- 34 **어린이 소식지**
국민참여재판 방청 후 외 1
- 36 **현장 속으로**
<한국인의 경영 코드> 저자 이동규 교수 특강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 40 **스타일링 Q**
도시녀, 순백의 눈을 만나다
- 공은혜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관
- 44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동문학에 '장애'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하다
- 동화작가 고정옥
- 48 **줄인**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 50 **트렌드 따라잡기**
<김생민의 영수증> 율로나, 저축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 52 **COURT NEWS**
- 54 **독자 마당**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글·사진_편집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영도다리, 송도, 태종대...
 서부산은 최근 영화의 무대가 되면서
 부산 관광 1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부산의 굴곡 많은 역사가
 이곳에 대찬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더 많이 아끼고 보듬어야 할
 우리의 터전입니다.

지난 3월 강서구 명지동에 개원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도 110만여 명의 지역민에게
 발 빠른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개원 121년 만에 동부와 서부,
 2개의 지원 체제로 출범한 만큼 사명감을 잊지 않고,
 서부산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부산 서부권의 사법 서비스, 이제 저희가 책임집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1일 개원, 7월 31일부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서부산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주제 하에 110만 명이 넘는 지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로 뭉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그곳에 다녀왔다.

글 이경희 · 사진 장병국 · 영상 정영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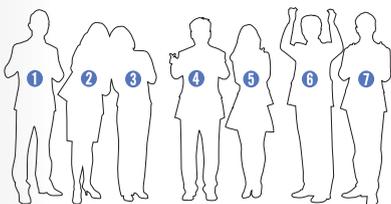




부산지방법원이 개원한 지 121년 만에 부산은 동부와 서부, 2개의 지원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지원은 앞으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 총 5개 구 지역민들에게 더욱 발 빠른,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근한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① 채정석 실무관
- ② 박지윤 실무관
- ③ 천영은 행정관
- ④ 김동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⑤ 강순영 판사
- ⑥ 최병희 행정관
- ⑦ 설신 실무관



미술관 같은 법원을 만나다

서부지원은 '법원'임이 틀림없는 장소이지만 한편으로는 꼭, 자주 와보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빛과 바람이 자유로이 넘나드는 곳을 가득 채운 80여 점의 미술작품 덕분이다. 미술관이나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과 회화작품 덕분에 지역 언론의 관심은 물론 관할지역 시민들에게서 구경 가도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서부지원. 공들여 꾸민 이 멋진 공간은 법원이 주는 긴장과 딱딱함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현장처럼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이 개원한 지 121년 만에 부산은 동부와 서부, 2개의 지원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및 많은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도움 속에서 무사히 개원을 마친 저희 서부지원은 앞으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 총 5개 구 110만 명을 상회하는 지역민들에게 더욱 발 빠른,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근한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동윤 지원장은 부산신항만, 김해국제공항, 명지국제신도시 등 빠르게 발전하는 서부산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천명한 서부지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서부지원 강서구청 지적현장민원실에 지적과 세무 담당 공무원 2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산신항만, 명지국제신도시 등 서부산으로 개발의 중심축이 옮겨오면서 지적 업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동윤 지원장은 이를 두고 “향후 등기관팀제 활성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으로 서부산 지역민들을 향한 배려와 그로 인한 편의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서부지원

신설 조직으로서 서부지원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단연 지역민과의 소통이다. 서부지원 개원 기념으로 개최한 인문학 강좌에는 직원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주민이 참석했다. 또 관내의 수많은 학생이 법원 견학을 와 법원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행사’ 역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우리 삶에 녹아 있는 법을 가깝게 느끼고 법 조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희 직원들은 신청사 입주 이전에
봉사단체인 '이웃사랑 수지회'를 만들어
난치병 돕기 후원, 난민 후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관내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 법원 견학을 하고 오찬을 했
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주민 등과의 체계화된 외부 소통 프로그램을 구성
하여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 직원들은
신청사 입주 이전에 봉사단체인 '이웃사랑 수지회'를 만들어 난치병 돕기
후원, 난민 후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체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주민
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김동윤 지원장은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넘치는 서부지원 직
원들에 대한 자랑도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북 카페 스타일로 만들어진 도서관과 옥외 휴게 공
간이 있는 식당을 갖추고, 4개층 18가구 규모의 독신자 숙소를 신축해 직
원들의 숙소 문제를 해소할 준비를 마친 것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서부지원의 복지 정책의 결과다.

청사 이전과 개원 관련 일정이 대부분 끝난 지금, 서부지원의 최고 화두
는 업무와 인력 정비다. 새청사로 이사한 이후 예상한 대로 많은 사건이
줄을 이어 들어오고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업무가 과도하게 몰릴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배치와 조절을 시도할 예정이며, 규모에 맞게 직원이 충원된다면 서부
지원은 그야말로 서부산 시대에 걸맞은 사법기관으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아직 사방에서 건물을 올리는 공사 소리가 요란하지
만 곧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이곳에서 서부지원의 존재감과 위상이 과
연 어디까지 닿을지, 지역민들은 물론 관계자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을 보
내고 있다. c



Mission Start



직원들의 축하 메시지



Interview



김동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취재 동영상만 만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공보관이 간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부산권 법률 문화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주시요”

2017년 3월 1일 서부지원이 개원했으나 청사 건축이 지연되어 2017년 7월 31일에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청사 이전을 마치고, 2017년 9월 1일 내외 귀빈과 지역 주민을 모시고 개원식까지 성대하게 진행했습니다. 서부지원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한 결과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서부지원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늘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헤아리고 고민하여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업무에서도 민원인들의 입장을 열린 자세로 바라보고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같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서로 믿고 서로 격려하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 스스로도 서부지원 구성원들의 입장을 더 헤아리고 배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원 개원으로 이제 서부산권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지원은 신뢰받는 법원,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법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법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고 서부지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는 청사 신축, 이전과 개원식 등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고 2018년은 사건 수와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원 증원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서부산권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구호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지원의 개원은 이곳 명지동에서 1개 법원의 개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서부지원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추진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길에 동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연말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MINI Intervie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람들의 한마디



강순영 판사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바쁜 업무로 연락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 통씩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을 가서 2017년의 추억도 되돌아보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채정석 실무관

올 한 해는 제가 계획했던 모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비롯, 유소년·노인·생활스포츠 지도사 등 체육과 스포츠 관련 모든 자격증을 취득한 거죠. 경호학 박사과정 면접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합격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친영은 행정관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끝까지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말이 필요치 않은, 서로 잘 헤아려주는 편안한 지인들과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2017년을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선신 실무관

올 여름 요트 세일링으로 대마도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재정을 배려해 연말에 다시 한 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파도와 바람 속에서 느끼는 '자유'에 푹 빠져볼 생각입니다.



최병희 행정관

올 연말에는 스키장에 살 생각입니다. 제가 스노보드를 워낙 좋아하고 스피드를 즐겨서 보드의 계절인 겨울만을 기다렸어요. 가족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박지윤 실무관

저는 올 7월에 이곳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동안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느라 친구들과 생일을 보냈는데 올해는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는데 대박 나서 온 가족이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요가로 즐기는 내 인생! 더 즐겁게! 더 날씬하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요가 동호회

글_이경희 · 사진_장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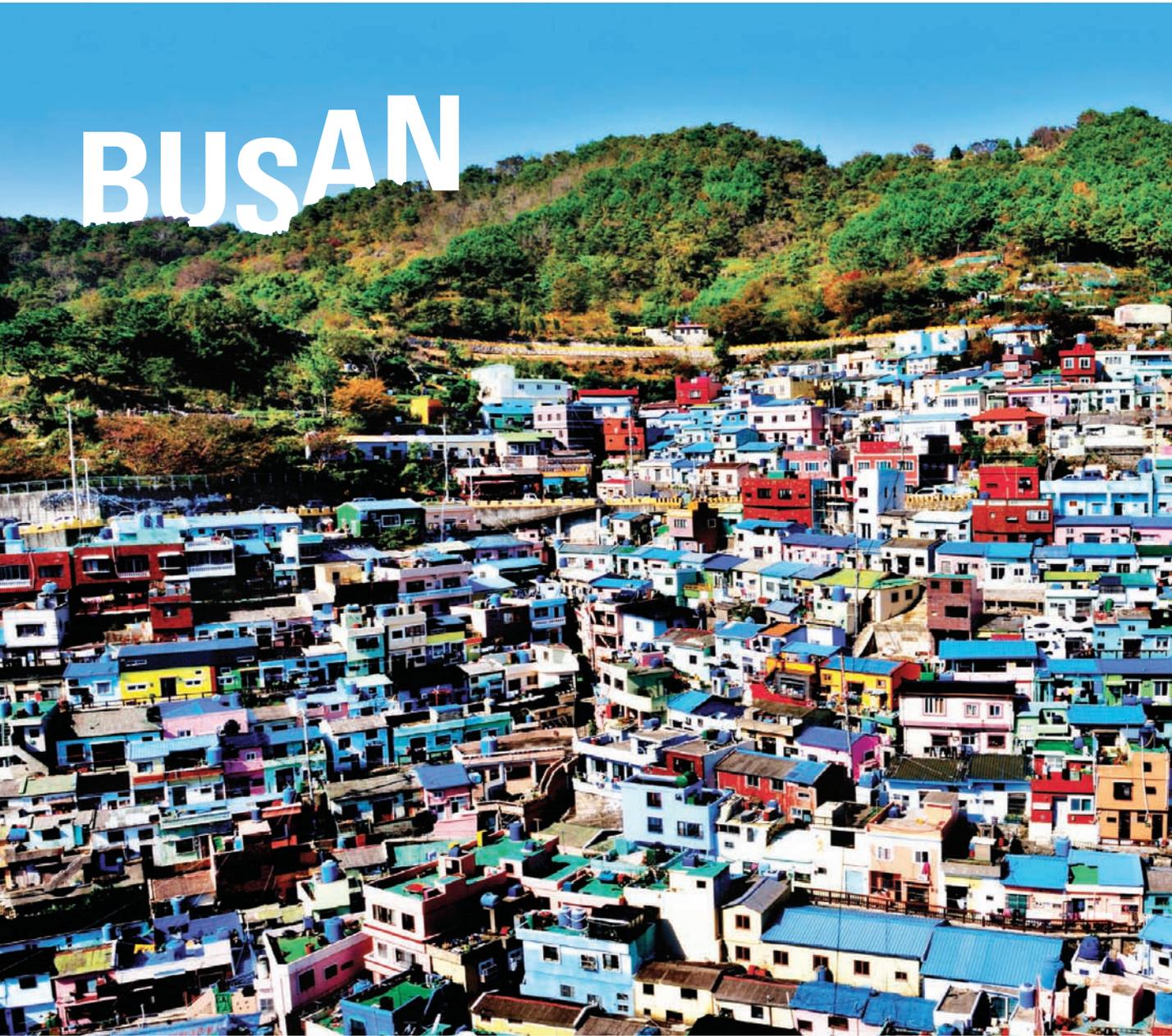




해안 절경, 달동네 산책의 앙상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인근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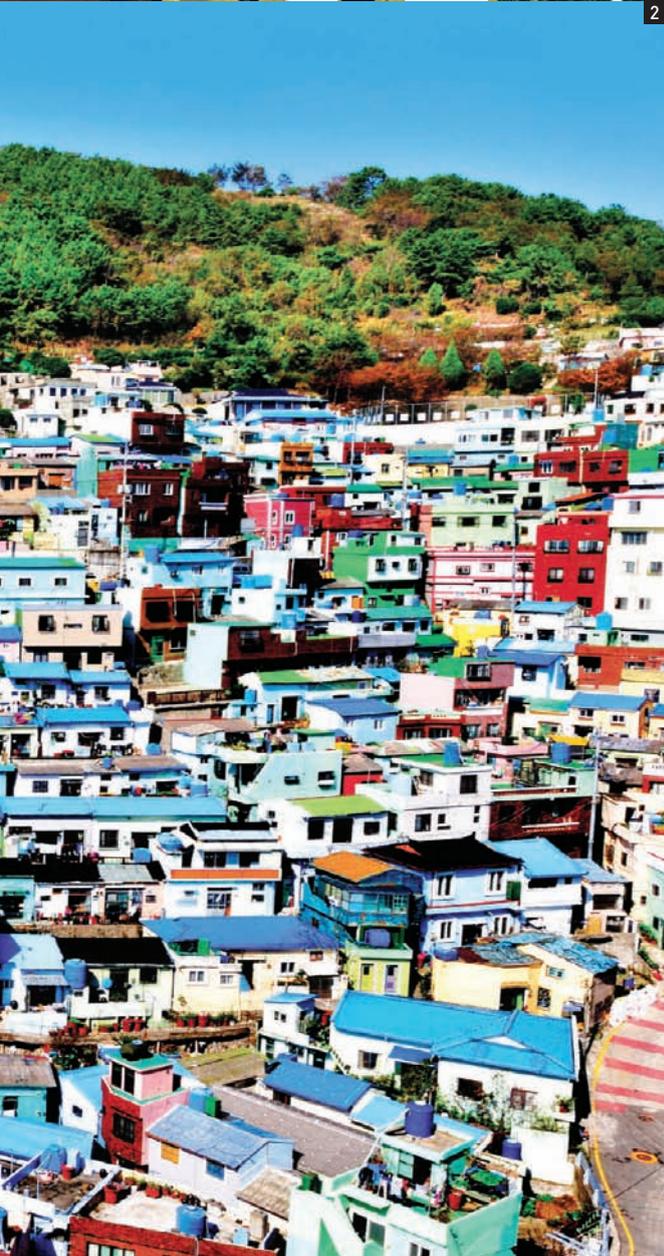
BUSAN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인근 여행지

1
2



부산은 '두 얼굴의 도시'다. 북적이고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고즈넉한 공간들이 긴 호흡으로 다가선다. 해안 절벽, 국내 1호 해수욕장, 삶의 향취가 묻어나는 산동네 등은 부산이 오랜 세월 보듬은 진면목들이다.

글 · 사진_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사진_협조_부산시

부산 동쪽이 광안리, 해운대로 들쭉한다면 서쪽은 호젓하고 수더분한 공간들이 주를 이룬다. 부산의 고전적인 여행지인 태종대와 송도 해변이 서남부 바닷가에 자리하고, 산복도로로변의 감천문화마을 역시 향수를 자극한다. 부산 서쪽 관광의 대표주자는 태종대다. 기암괴석이 멋스러운 태종대는 오륙도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명승지다. 태종대로 가는 길부터 기분이 들뜬다. 태종대의 관문인 영도다리는 도개교인 옛 모습을 되찾았고, 절영해안도로 역시 수려한 해변 경치로 마음을 먼저 다독인다.

'추억의 풍경' 태종대와 송도 해변

영도 최남단에 들어선 태종대는 파도와 바위 절벽이 빚어내는 아득한 풍광을 선사한다. 태종대는 삼국통일을 달성한 신라 태종무열왕이 절경에 취해 한동안 머물며 풍류를 즐겨 붙여진 이름이다. 술한 시인과 묵객들 역시 절벽 해안에서 바람을 맞으며 태종대에 몸과 시심을 담았다. 영도 등대, 신선대,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태종대길에서 두루 둘러볼 곳이다. 1906년 처음 불을 밝힌 영도 등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파도와 바위가 만들어내는 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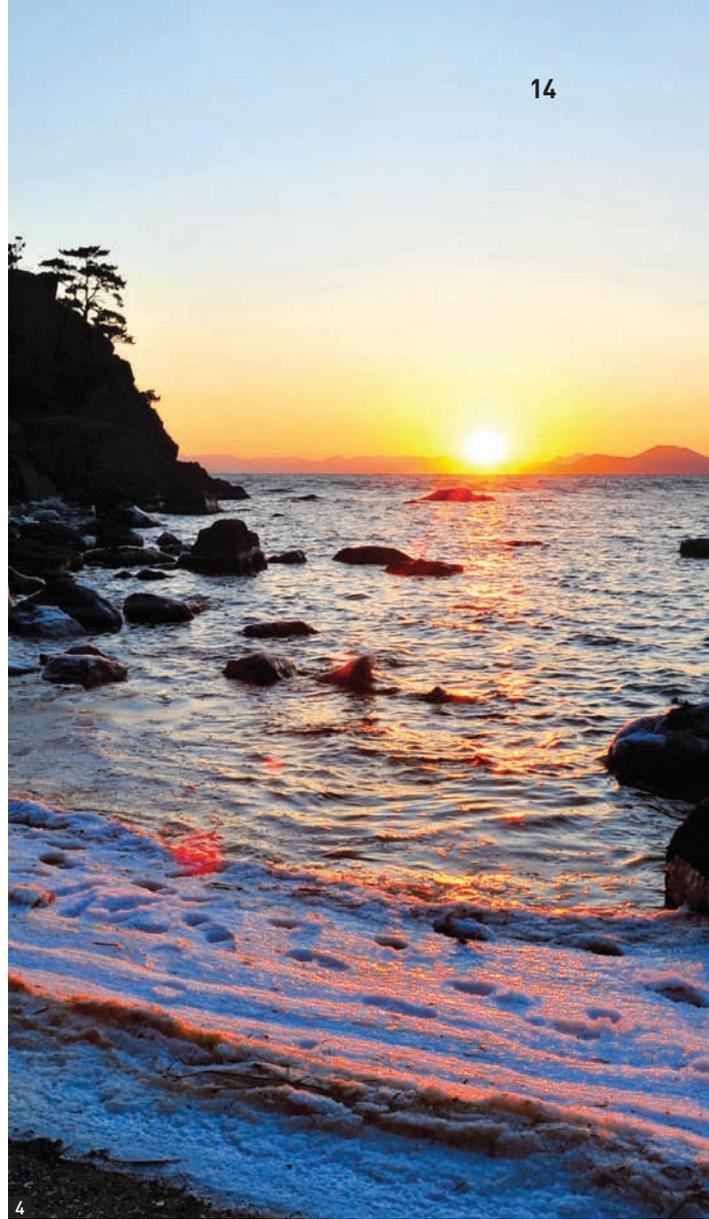
3

1. 감천문화마을의 어린왕자와 시막여우 조각상
2. 파스텔톤의 가옥과 골목길이 예쁜 달동네인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린다.
3. 부산의 대표 어시장, 자갈치시장.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4. 다대포 해변은 부산의 일몰 포인트로 손꼽히는 곳이다.
5.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로 새롭게 단장된 송도해변.
6. 겨울이면 철새가 날아드는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니를 묵묵히 지켜봐 왔다. 등대는 도서관, 갤러리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변신했지만 옛 운치만은 변함이 없다. 순환도로를 걸거나 유람선을 타고 해상일주에 나서면 태종대의 색깔은 더욱 완연하게 다가선다. 망부석이 들어선 신선대와 전망대에서 조망하는 풍광에는 항구 아닌 코발트색 바다의 부산이 서려 있다.

송도로 향하는 길은 추억의 해변과 조우하는 길이다. 송도해수욕장은 우리나라 공식 해수욕장 1호로 등재된 곳이다. 광안리, 해운대의 명성에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100년 넘는 해수욕장의 자취는 지속되고 있다. 고래 조각상이나 거북알 조형물이 송도의 양증맞은 상징이었다면 최근에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파도를 가르며 가는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바다 위를 거니는 구름산책로가 생겨나 이채로운 풍광으로 단장됐다.

송도 해변 인근의 부산공동어시장 역시 진풍경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80%가량이 거래되는 곳으로 가을이면 이곳에서 고등어 축제도 열린다.



4



5

‘한국의 마추픽추’ 감천문화마을

서쪽 부산으로 들어설수록 도시 뒤의 풍경이 친밀하게 다가선다. 최근 사하구의 명소로 사랑받는 곳은 감천문화마을이다. 산기슭을 가로지르는 산복도로와 달동네마을은 부산의 세월과 명맥을 같이한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란민들과 근대화의 길목에 선 서민들은 산기슭 계단식 집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았다. 그 산동네 중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곱게 단장된 파스텔 톤의 동네다. 지역 예술가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구현해내면서 감천문화마을은 아기자 기한 갤러리, 카페, 벽화 등이 들어선 색다른 공간으로 변신했다. 미로 같은 골목을 거닐다 보면 어린왕자 조각상, 등대 포토 존 등이 반기며 마을에서 공방,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일몰 뒤 마을 골목 탐방은 삼가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의 끝자락은 낙동강과 만난다. 낙동강이 강의 일생을 마치고 남해에 몸을 던지는 곳에 다대포와 을숙도가 있다. 한때 낙동강 하구의 해수욕장이었던 다대포는 갯벌화가 진행되며 갯벌 자연 학습장으로 변모했다. 다대포는 매년 12월 31일이면 해넘이 축제가 열릴 정도로 손에 꼽히는 낙조 포인트다. 다대포에서 아미산 전망대를 거쳐 을숙도까지가 강 끝 투어 걷기 코스로 매력적인 곳이다. 갈대숲이 장관인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로 겨울 명성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다. c



TIP

먹거리

“탕으로, 샤브샤브로 먹는 갈미조개!”

겨울 해변 골목에서는 뜨끈한 먹거리가 제격이다. 바람 부는 포구에서 국물 가득 조개탕을 맛보거나 갓 구워낸 먹장어로 속을 채우면 온몸이 훈훈해진다. 갈미조개, 먹장어 등은 겨울이면 더욱 감칠맛 나는 부산의 별미들이다.



낙동강 하구엔 일대는 갈미조개의 산지다. 표준어로는 명주조개지만 부산 사람들은 대부분 갈미조개라 부른다. 하구엔 다리 옆 명지시장은 인근 주민들이 잡아온 갈미조개가 한데 모이는 시장이다. 이곳 식당에서 갈미조개는 탕으로 먹고, 샤브샤브로 먹고, 삼겹살과 곁들여 구워먹기도 한다. 탕으로 먹는 갈미조개탕은 타 지역에서 먹는 조개탕과는 차원이 다르다. 조미료 없이 끓여낸 탕은 깊은 맛을 내며 조갯살은 유달리 쫄깃쫄깃하다. 갈미조개탕 국물은 술 마신 뒤 속을 시원하게 풀어줘 해장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



부산에 가면 놓칠 수 없는 먹거리가 먹장어다. 부산 곳곳에 먹장어집들이 있지만 태종대 입구나 송도 해변 역시 원조 먹장어집을 표방하며 맛 자랑에 나선다. 부산 먹장어는 족석에서 숯불로 구워 먹어야 아늑아늑한 맛이 제대로 전해진다.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밴 부산 먹장어는 잔뼈가 없고 부드러워 소금을 친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목을 타고 술술 넘어간다. 양념장을 바르거나 상추나 깻잎에 싸먹는 것도 좋다.



부산 서민음식의 대표주자는 돼지국밥이다. 부산에만 전국적으로 소문난 10여 곳의 국밥집이 성업 중이다. 24시간 돼지 뼈를 우려낸 뽀얀 국물에 부추, 겉절이 등을 듬뿍 넣은 돼지국밥은 겨울 별미로 손색이 없다. 서구 보수대로의 신창국밥집은 30년 세월의 구수한 맛을 자랑한다. 서구 대신공원로의 밀양돼지국밥은 내장이 곁들여진 킬킬한 맛이 잘 어우러져 있다.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설

소년보호사건 보호자를 위한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제작 후 배포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소년의 부모인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월 10일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개설된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글_편집부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나

소년법상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호자(보호소년의 부모, 친족, 후견인, 보호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주로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자가 된다)가 소년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감호(보호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소년을 보호, 지도, 원호하는 것) 위탁하는 1호 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

년보호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여 보호자에 대하여 집행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호자는 보호처분기간인 6개월 동안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의 집행기관으로서 감호위탁 종료 시까지 보호소년을 감호해야 하고, 보호소년의 감호위탁 상황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전체 보호처분에서 1호 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통계(2014~2017년)에 의하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의 편의성

집행기관으로서 보호자는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해 감독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주로 보호소년의 부모나 친족으로 관련 서류 작성에 능숙하지 못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양식을 새로 제정하고, 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오픈하였다.

작성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컴퓨터에 옮기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서술형 작성은 최대한 줄이고 보호소년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재비행 여부, 병과형 이수 여부, 법원의 개입 필요성, 기타사항의 선택형으로 구성된다. 보호자가 문항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보호자들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행상황보고서'를 클릭하기만 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저장하거나 출력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c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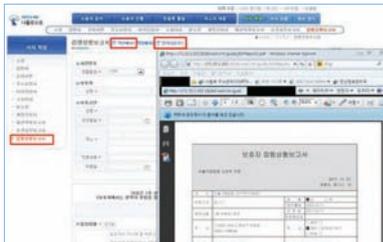
1.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2. 집행상황보고서 선택



- [서식작성] →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클릭
-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3. 작성 예시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작성예시]를 제공
-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수기로 작성 가능

4. 집행상황보고서 작성하기



- [관할법원] 선택 - 총 15개 법원 중 선택 가능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 사건 구분은 소년보호사건 [푸, 크, 트, 푸초, 푸집] 중에서 선택
- 처분일, 처분종료일, 학교생활, 병과형 등 이수 여부, 기타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수사항임

5. 작성 완료 후 출력하기 등



- 작성 중 또는 작성 완료 후 미리 보기 가능
- 작성한 보고서 저장하기 및 출력 가능 제공

사랑골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상)

조고비, 조고부 혹은 조판사 무덤에 대하여

글_유기종 서울고등법원 사무관



고종은 조병갑에 대해 고부민란의 책임을 물어 유배형으로 단죄하였지만, 1년여 후 사면·복권시키고 1898년 1월에 법무 민사국장, 그해 5월 대한제국 최고재판소(고등재판소) 판사에 임명하였다. 그는 사후에 평소리 사랑골에 묻혔고 사랑골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조고비, 조고부 혹은 조판사의 무덤’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필자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국내 한 월간지와 향토사학지에서 그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부터였다. 2006년 11월호 월간조선의 ‘동학혁명 후 대한제국 판사가 된 조병갑은 1898. 7. 18. 동학교주 최시형 선생에게 사형선고’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고부군수 재임 전의 그의 공적비가 김해, 함양, 천안에 존재하며 이따금씩 그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제를 지내곤 하였다는 내용과 그가 대한제국의 판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을 지낸 조모씨가 공주시 신평면 평소리 사랑골에 묻혀 있는 그녀의 증조부인 조병갑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한편 2010년 늦가을 즈음, 당시 필자는 흥성지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우연히 접하게 된 예산군 대흥면에서 발간한 향토사학지 ‘대흥 먼지’¹⁾에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병갑은 대흥군에 숨어들었다. 대흥은 양주 조씨가 세도가를 이루고 있어 연고가 있었으며 그를 추적하던 동학군을 피해서 이곳에 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자 유구 동해동으로 피신하였다. 이곳에는 지금도 20여개에 달하는 조병갑 식솔들의 무덤이 있다. 이후 그는 다시 공주군 신하면(현 신평면) 평소리 사랑골로 세간의 눈을 피해 도망가 여생을 마친 후 이곳에 묻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체로 그러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부군수 조병갑은 ‘탐관오리’ ‘탐학 관리’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 등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터라 그가 ‘공주에 묻혀 있다’는 것과 구한말 대한제국 ‘고등재판소 판사’였다는 기사와 기록은, 공주에서 성장하고 법원에 몸담고 있는 필자에게 생소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군의 최후의 결전지인 공주 우금치 전투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때문이다. 이 전쟁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 미친 영향과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조선 침탈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 1만~1만 5000명의 농민군 중 겨우 500여 명만이 생존하여 패퇴하고 대부분의 농민군이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그 농민군의 시신이 수십

1) 1914.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전까지 대흥군 중심지로서 오랫동안 지역의 정치, 행정, 군사,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향토색이 강하였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적합하도록 임의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흥군의 관할 구역인 용당리(현재는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에 구한말 순조부터 고종까지 4대 임금을 보필하고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趙斗淳, 본관 양주 조씨)의 묘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서 양주 조씨가 세도를 형성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병갑의 부친이 조규순으로 그의 둘째 부인 사이의 서자였으며 조두순의 서조카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조병갑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한편 대흥과 유구 동해동, 신평 평소리는 금북정맥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곳에 접하고 있다.



되기는커녕 우금치 일대 산하에 버려졌는데 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은 우금치에서 멀지 않은,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듯한 잘 관리된 묘역에서 한 세기가 넘도록 영면하고 있다. 둘째, 탐관오리로서 그의 죄상이 단죄되지 아니한 채 대한제국의 판사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의 판결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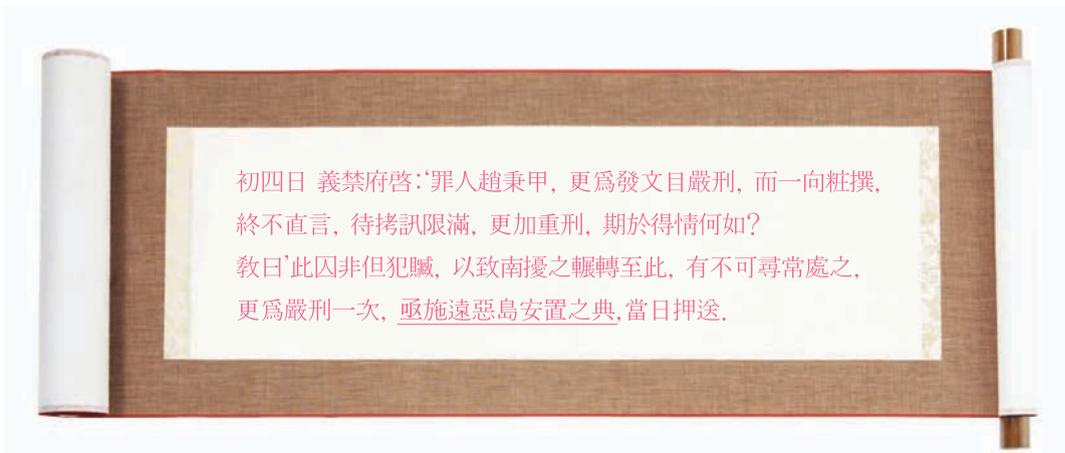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의 원인과 발발, 전개, 역사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격랑의 구한말, 그 시대의 중심에 여전히 조병갑이 서 있었고 특히 동학혁명 후 그의 행적을 밝힘에 따라 봉건왕조에서 근대화시대로 넘어오는 시대상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행적을 밝혀봄으로써 구한말 조선 조정의 실태와 갑오개혁으로 시작된 근대화의 과정, 무엇보다도 근대사법이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는지 더욱 균형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병갑이 고부군수에서 파직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국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탐관오리' '탐학' 등의 기록만 보이고 그 밖의 문헌과 기록을 통해 분절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부는 부정확하고 출처를 알 수 없으며 사실에 대한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사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논문 역시 전무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 조병갑에 대한

단죄와 사면 복권 과정을 개관하고, 법무 민사국장 및 판사 조병갑 그리고 당시의 사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실제 그가 평소리 사랑골에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기록, 양주조씨대종회 족보, 사랑골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다루어지는 무겁고 장중한 주제에 대해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가 아닌, 더 객관적인 근거와 출처가 명확한 기록을 통해 전개하였다.²⁾

고종, 고부군수 조병갑을 단죄 그리고 사면 복권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군은 폐정개혁안의 수락을 조건으로 강화하고 전주성에 철병하였다. 역사는 전주화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때의 폐정개혁 12개 조항 중 두 번째 수락 조건으로 ‘탐관오리의 죄상을 자세히 조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폐정개혁안 수락 조건의 이행이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조정(의금부)에서는 고부군수 조병갑을 나문정죄(拿問定罪: 죄인을 잡아다 신문하고 죄를 판단하여 결정함)하여 갑오년 5월 4일 고종에게 아뢰기를 “죄인 조병갑이 거짓으로 일관하며 죄상을 부인하니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간언하자 고종은 “이 죄인은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도의 소요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깊이 생각할 것 없이 한 차례 형장을 치고 속히 멀리 있는 험한 섬에 거주를 제한하여 유배에 처하라” 하였다(필자 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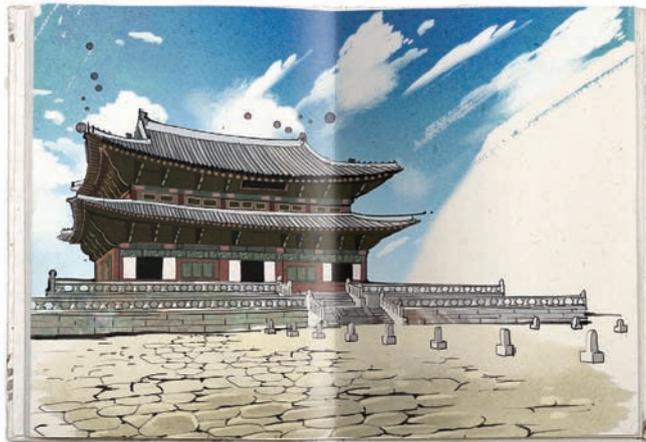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5월 4일, 1894)

2) 이 글은 많은 논저를 참고하였다.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 동학관련판결문집, 법원사, 그 밖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근대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신우철(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2호를 참고하였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출처를 밝혔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한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고 주석을 달았다.

당시 근대사법이 도입되기 직전이었으므로 ‘대명률’ 혹은 ‘대전회통’에 따라 중형에 해당하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조병갑은 죄목이 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남도 강진의 고금도(현재 완도군 고금면)에 압송되었다.

대명률에 따른 유배형은 극원지역(極遠地域), 절해고도(絶海孤島)에 유폐시키는 형벌로 부처(付處)와 안치(安置)의 방법이 있다. 부처는 관원에 대해서 과하는 형으로 비교적 가까운 도(道)에 보내 그곳 수령의 처치에 맡겨 살 곳을 정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임에 비해 안치(安置)는 유배지의 일정한 장소에 격리해 거주시키는 것으로 본향안치(本鄉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가 있다. 절도안치는 유배의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로 중죄인을 원악의 도서에 유폐하는 것이다.³⁾ 조병갑의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므로 본향안치(本鄉安置)는 아님이 확실하고, 고종 실록의 기록 ‘亟施遠惡島安置之典’의 의미는 가혹한 형벌인 절도안치(絶島安置)에 처하라는 고종의 의중으로 보이나 집행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금도는 강진의 마량포구에서 불과 1.3km 떨어진 섬이며 육지가 지척에 보이는 곳으로 절해고도가 아닌 넓고 물자가 풍부한 섬이기는 하나 과연 고종이 말한 ‘원악도’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조정의 대신들과의 유착,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념해 보아야 할 대목으로 고금도로의 압송 경로를 보면 반드시 동학농민군이 집강소 등을 통해 장악하고 있었던 전라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압송행로에서 어떠한 위해를 보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동학농민군의 군율과 기강이 상당히 엄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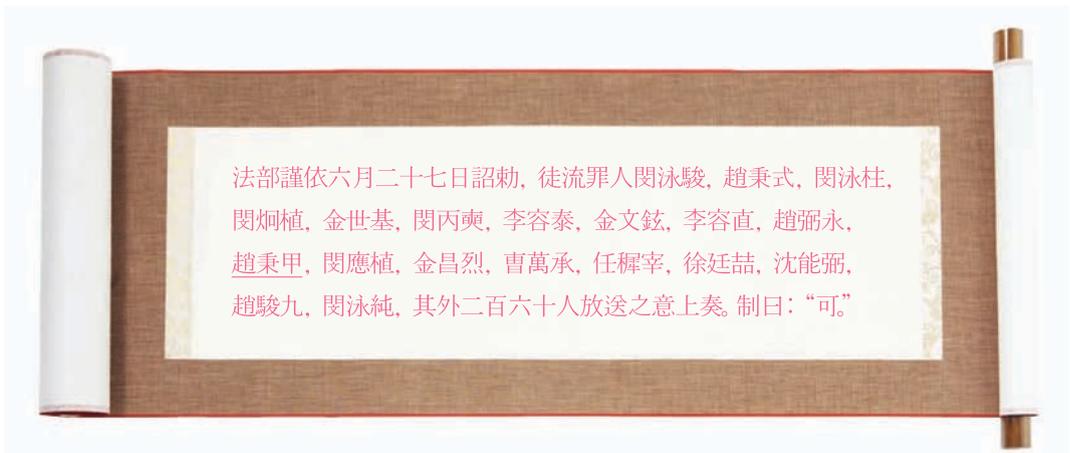


3) 조선시대 유배 형벌의 성격(신규수, 한국문화연구 23, 2012, 140 ~ 141쪽)

4) 조선시대 유배지 연구에 의하면 원악도에 해당하는 유배지로 제주도, 추지도, 거제도, 보길도, 백령도 등이 등장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속속 체포되어 처형되기 직전인 이듬해 3월 12일 친일 총리대신 김홍집과 법무대신 서광범은 다시 조병갑의 죄상을 신문하겠다는 빌미로 고금도에 있던 조병갑을 한양으로 압송한다(당시 법무권설재판소에서 전봉준 공초록을 살펴보면 전봉준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죄상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는 바, 법무대신이자 법무권설재판소 재판장 서광범은 이를 확인하고자 했는지 혹은 사면 복권의 수순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고종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고종은 1895년 7월 3일(고종 32년) 대사령(大赦令)과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법부 관제 제1조)하는 법무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탐관오리 조병갑을 비롯한 부패한 관리 279명을 사면하였다. 고종 실록에 의하면 법부(法部)에서 6월 27일 조칙(詔勅)에 의하여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인들인 민영준(閔泳駿), 조병식(趙秉式), 민영주(閔泳柱), 민형식(閔炯植), 김세기(金世基), 민병석(閔丙奭), 이용태(李容泰), 김문현(金文鉉), 이용직(李容直), 조필영(趙弼永), 조병갑(趙秉甲), 민응식(閔應植), 김창렬(金昌烈), 조만승(曹萬承), 임치재(任穉宰), 서정철(徐廷喆), 심능필(沈能弼), 조준구(趙駿九), 민영순(閔泳純) 외 260명을 방송(放送)하자는 뜻으로 아뢰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7월 3일, 1895)

이로써 조병갑은 10여 개월의 짧은 유배형 끝에 해배(解配)되었고 이에 사면·복권되었다. 조병갑을 비롯해 사면·복권받은 이들은 대부분 탐관오리로서 향후 전개되는 일제의 조선 침탈과 더불어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하편 다음 호 계속). 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보낸 1년

글_ 홍진영 춘천지방법원 판사



들어가며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지내신 송상현 전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판관에 선출되어 재직 중이신 정창호 재판관님, 구 유고 전범재판소에서의 풍부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 선출을 확정 지으신 권오곤 전 재판관님의 활약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에 대해 지금까지 그리 큰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량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조금씩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저 역시 그러한 계기로 국제형사법에 대하여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던 중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국제형사재판소에 파견되어 1심 재판부에서 Visiting

송상현 전 소장님 방문 당시 재판소 로비에서.
 왼쪽 끝부터 장지용 판사님(Hoch 파견), 김휴리 인턴,
 필자, 홍일명 수사관님, 송상현 전 소장님, 정창호
 재판관님, 이유선 검사님(ICC 파견), 이종호 인턴,
 강종선 부장판사님(주 네덜란드 대사관 파견)



Professional의 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재판연구관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률 쟁점이나 특정 증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때로는 결정문의 초안을 직접 작성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배석한 경험이나 재판관들의 중간합의에 참석하였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은 이른바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0년대에 구 유고 지역과 르완다에서 일어난 종교·인종 갈등과 대량 학살의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하여 설립한 구 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범재판소는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처벌의 소급효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향후에 이처럼 잔혹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효과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임시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설국제형사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8년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유엔 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로마규정은 60개국의 비준으로 2002년 7월 1일 자로 정식 발효되었고,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24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관할대상범죄로 삼고 있는데, 아직 침략범죄에 관한 조항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 절차의 몇 가지 특징

국제형사재판 절차의 세세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입니다. 로마규정의 서문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에 형사사법기관의 목적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불처벌의 종식’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은 자칫 국제형사재판에서의 유죄추정이라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소에 가서 관찰해본 결과 국제형사재판소 또한 여타의 형사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기울이며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규정에서는 소추관에게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뿐만 아니라 무죄의 증거까지도 수집하도록 하는 객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엄격하게 운용되는 증거개시 절차 속에서 유·무죄의 증거는 모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개시되어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증거와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의 첫 번째 사건인 Lubanga 사건의 재판부는 소추관이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개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공판 절차의 정지를 명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명하였을 정도로, 증거개시는 재판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판소의 노력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각국이 형사사법주권을 조금씩 양보한 결과로서 설립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재판소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해나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그러한 양보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그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데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권오곤 재판관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법언 중에 “Justice should not only be done, but should be seen to be done”이라는 영국 판례의 법언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설법정은 범죄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자칫하면 절차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진행 과정을 널리 알릴 필요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밖으로까지 확대, 비공개 심리절차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30분 지연 중계하고 있습니다(지연 중계를 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당사자나 증인이 비공개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방송에서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은 물론 재판 중간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이유를 구두 또는 결정문으로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 내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보장과 피해 회복을 통하여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소의 노력입니다. 구 유고전범재판소나 르완다전범재판소와 같은 임시국제형사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독자적인 지위나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던 반면, 로마규정에서는 피해자의 구제를 국제형사재판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였고, 피해자를 능동적인 절차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만 그러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과 피해배상 신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Ongwen 사건에서의 재판 진행 모습.
재판관석 앞의 재판연구관석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필자.



재판 절차에 대한 참여를 허가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재판부로부터 지정받은 피해자 변호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금전배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단순히 명목상의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뿐만 아니라 소추부, 사무국 산하의 여러 피해자 관련 부서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 종사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필요성

재판소에서 1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의 성실성과 우수성은 그 어느 나라 출신의 법률가 및 직원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에의 한국인 진출은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재판소의 전체 인력 중 한국인 출신 정직원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홍일영 수사관님 한 명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감안하면 적어도 12명의 한국 출신 정직원을 더 뽑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재판소에는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이나 검사, 피해자 변호인뿐만 아니라 재판지원 또는 사법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역이 존재하므로, 우리 사법부에서 쌓은 근무 경험과 지식 또한 재판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대한 열망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파견법관 제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근무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c



“오늘 견학은 즐거운 역사·사회 시간 같았어요”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대법원 견학

글_김화숙 · 사진_장병국



11월 10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한 초대 손님들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한부모들과 자녀들이었다. 평일 오후 엄마와 아이가 함께한 특별한 날들이인 만큼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후원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다.

오늘 참가자들은 먼저 법원 전시관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대한민국 법의 역사와 정의의 여신상, 조선 시대의 법, 법정 모형 등을 두루 둘러보았다. ‘정의의 여신상’ 사진 앞에서 도슨트가 돌발 질문을 던졌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감고 있는데 왜 이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을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잘 보려고요”라고 답했다.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과 진실

만을 보겠다는 의미예요. 바로 법원의 정의를 상징하고 있어요”라고 도슨트가 자세히 설명하자 참가자들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조선 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자 아이들은 역사 시간에 배워서인지 다들 반가움에 말문을 열었다. 도슨트의 설명에 귀를 더 쫓듯 세우고는 “오늘 견학이 꼭 역사와 사회 시간 같다”며 즐거워했다.

참가자들은 형사법정, 민사법정을 재현해 놓은 법정 모형 앞에서 다시 한 번 호기심의 안테나를 쫓듯 세우는 듯했다. “배심원단이 보이시나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재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법원 전시관 관람을 끝내고 일행은 대법정을 둘러보고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동상 앞에서 그의 업적도 간단히 들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참가자들은 견학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법원과 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법조인이거나 법원 공무원 등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잘 기획돼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황은숙(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제 꿈이 판사인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판사가 꼭 되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져요. 국민참여재판과 대한민국 법의 역사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던 즐거운 사회·역사 시간 같았어요.” 한혜선(중학교 1학년) ☐

판결문의 비실명처리

글_이기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최근 국회로부터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의 질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도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행정부(기획재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는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많은데, 미국¹⁾, 중국²⁾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고법원의 판결문은 대체로 폭넓게 공개하는 데 반해 하급심의 판결문은 공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조사심의관의 입장에서는 ‘비실명처리’, 즉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8월호 조사심의관 코너에서 판례공보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 판결문의 개인정보 비실명처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미국은 주마다 또 연방의 제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미국은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2014. 1. 1. 시행된 ‘인터넷상에 인민법원 재판문서의 공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在互联网公布裁判文书的规定)’에 따르면 혼인사건의 당사자, 형사사건의 피해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는 실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심의관들이 비실명처리 업무를 하는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판례공보에 게재되는 판결문, 종합법률정보에 외부공개용으로 등록되는 판결문(대법원판결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하급심판결 포함)입니다. 속보자료가 발간되는 판결문들은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경우 선고된 때부터 1시간 이내, 그 외의 판결문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비실명처리를 완료하여 법원도서관 및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별도로 비실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일까요? 조사심의관들이 하는 비실명처리는 법원도서관 내규인 「판례 편찬물 등의 비실명 처리 지침」에 따릅니다. 지침에 따른 비실명처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연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비실명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예외이고 역사적 인물, 공지 주요사건 또는 명예훼손 소송 등의 당해 유명인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외에도 자연인의 식별정보, 즉 성명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별명 등), 각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거주지 주소 등), 각종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수표번호 등), 기타 특정인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도 비실명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명칭이나 상호, 개인사업체 명칭, 학교·병원명, 지방자치단체명 등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유지합니다. 다만 공개될 경우 자연인인 사건 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등에는 비실명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형사판결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실명처리를 하고 그 외의 판결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때 등에 예외적으로 비실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실명처리 대상 정보는 어떻게 ‘비실명’인 것으로 만들까요? 자연인의 성명과 법인 등의 명칭은 소송상 일정한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위에 따라 ‘원고 1’, ‘피고인 2’, ‘준항고인 3’ 등과 같이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공소외 1’, ‘공소외 2 주식회사’ 등과 같이, 나머지 판결문의 경우에는 ‘소외 1’, ‘신청외 2 회사’, ‘청구외 3 종중’ 등과 같이 바꿉니다. 당사자란의 성명, 명칭 외의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판결 이유 중에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등장 순서에 따라 ‘(전화번호 1 생략)’ 등과 같이 변경합니다(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단순히 삭제합니다). 판결 이유 중에 나타난 주소를 비실명처리(‘비식별처리’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해야 할 경우에는 시·군·구 이하의 부분부터 지번 부분까지를 ‘(주소 1 생략)’ 등과 같은 문구로 대체합니다.

문제는 상호 등의 비실명처리 방법입니다. 기존의 지침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호 등은 고유한 명칭 부분을 글자 수와 동일한 부호로 적절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처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때 사용하는 부호의 순서도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판례공보에서 많이 보시는 '○○○', '△△△', '□□□', '◇◇◇'부터 시작해서 66개의 부호가 열거되어 있었는데, 대법원판결의 경우에는 비실명처리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 위의 부호들 외에 다른 부호가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판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실명처리해야 하는 대상이 많은 경우 66개의 부호로도 모자라, 다음과 같이 보기 드문 부호를 이용하여 비실명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살피건대, (중략)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범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행시 22회 동기인 공소외 29ㄴㄴ시장에게 전화하여 의암호 <<<< 복합타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2010. 10. 15.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다. (이하 생략)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실명처리를 하는 경우 가독성이 저하되고 읽을 때 지칭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실명처리 업무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위와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상호 1 생략)’, ‘(명칭 2 생략)’ 등과 같은 방식으로도 비실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얼마 전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방식으로 비실명처리를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새로운 방식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판례공보를 보실 때 종전과 다른 방식의 비실명처리 예가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침만으로 비실명처리 업무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지침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 조사심의관들이 상호 토론을 하면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사건 판결문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내용, 사망 경위, 학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상세히 나타나거나, 사망 원인, 상세한 생활 모습과 함께 근무하였던 회사가 나타나는 경우, 조세사건 판결문에 회사의 유력 관계인의 병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침에 없더라도 리결마인드를 동원하여 그때그때 비실명처리를 할 것인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비실명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판결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결문의 비실명처리 업무가 생각처럼 단순한 일은 아니고,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사건관계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의 ‘판결서 비실명화 및 전자소송사건 스캔업무지원 사업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열람 대상인 판결문들을 대량으로 비실명처리하고 있는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실명처리 대상 정보를 유형 구분 없이 A, B, C 등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의 비실명처리 지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업소의 비실명처리 방식은 대상이 되는 본안사건 판결문 수와 외주업체 직원을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질의나 언론보도를 볼 때마다 조사심의관들은 비실명처리의 문제,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상세한 판서로 개인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 판결문들을 비실명처리하는 문제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정보들의 비식별처리 문제³⁾와는 성격이 달라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c

3)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2016. 6. 30. 발행), 국회입법조사처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2017. 5. 24.)도 ‘정보집합물’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최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 2014가합538302(병합) 판결도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정보의 비식별처리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어린이 소식지

2017 DECEMBER | <http://we.scourt.go.kr/kids/board/BoardListAction.work?gubun=951>

| NO. 07

01 국민참여재판 방청 후



어린이기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601호에서

2017년 10월 3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인데 새벽 3시에 여느 때처럼 화물을 운반하던 도중 미처 보지 못한 김○○을 치어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뇌가 손상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인 피해자가 잘못을 한 것으로, 자신은 형사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 경우 그에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재판이다. 재판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로 진행되었다. 재판을 관람하면서 판사와 변호사가 서로 같은 CCTV 영상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분석하여 반대되는 의견을 말한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때 거침없이

허를 찌르는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던진 것이 인상 깊었다. 재판 중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엄지손가락에 파란색의 밴드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서로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다쳤나?' 하는 의문을 느꼈는데, 종이를 넘길 때 쉽게 넘기기 위한 골무를 엄지손가락에 낀 것이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신뢰의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예상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다. 앞으로도 신뢰의 원칙과 같은 법률 용어들에 대해 많이 공부해서 다음에 재판을 방청할 때에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다.



풍동초 6학년 박예완

02

백성을 구한 진대법



부모가 되어 백성이 이런 극도의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다”라며 옷과 음식을 주어 안심시키고 위로했다. 그 후 내외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을 널리 찾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게 했다. 또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대여하여 주고 가을에 갚게 한 것이 바로 진대법이다. 이러한 진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복지제도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백성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현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복지가 현대사회 사람들만의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민생을 돌보는 법’들이 존재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의 진대법이라 할 수 있다.

진대법의 ‘진’은 흉년에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뜻하고, ‘대’는 봄에 양곡을 대여하고 가을에 추수 후 거두어들이는 것을 뜻한다.

진대법은 194년에 만들어졌다. 고구려 고국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에서 우는 자를 보았다. 왕이 왜 우느냐고 묻자 그는 가난하고 궁해서 항상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을 팔 데가 없어 곡식을 얻을 수 없어 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내가 백성의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대여하여 주고,
가을에 갚게
한 것이
바로 진대법이다



풍산초 6학년
박나림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Think Different)”

〈한국인의 경영코드〉 저자, 이동규 교수의 인문경영 융합특강



법대를 졸업한 후 경영학을 전공한 이동규 교수는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경영평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불린다. 특히 문제의 핵심을 알기 쉽고도 예리하게 전달하는 그의 촌철살인 강연은 모든 청중을 매료시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11월 15일(수) 법원도서관 주최로 열린 그의 특강에서도 강연 내내 웃음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소개한다.

글_백영순·사진_엄성식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 한국품질경영학회/ 생산관리학회 부회장, 서비스경영학회 이사
-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정책·경영자문교수
- 전행자부 정부혁신관리위원(대통령 표창)
- 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팀장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의 소개로 강단에 오른 이동규 교수. 그는 “한국 최고의 법관들 앞에서 법치를 넘어 이치에 대한 인문학과 경영학의 융합 강의를 하겠다”면서 “재미난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열흘간 여행하고 왔다는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인 ‘천지창조’를 보여주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이 천장화는 미켈란젤로가 홀로 4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여 완성한 것으로 자신의 한계와 싸워 이긴 대표적인 걸작으로 통한다. 세기의 인물로 이야기되는 미켈란젤로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목표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각자 돌아보자는 당부가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공감의 뜻을 표했다.

2시간의 강연에서 이 교수의 바람직한 리더상과 조직문화

등을 다룬 그의 베스트셀러 <한국인의 경영코드>의 핵심 내용을 최근의 예시로 쉽게 풀어냈다. 이번 특강에서 호응이 가장 컸던 대목은 직원존중, 즉 'People 1st'에 관한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영 성과를 언급하면서 변함없이 늘 하는 말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두 글자를 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라고 그는 말했다. 기존의 '모든 고객은 왕이다'라는 식의 맹목적인 명제 대신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든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진정한 고객만족은 직원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 전제로서 "절대로 아무나 뽑지 마라(hire carefully)"는 점도 분명히 제시했다. 또한 사우스웨스트, 페덱스, 리즈칼튼 등의 경영철학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감정노동 영역인 콜센터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구성원들이 만족해야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 공항 등 이어 사법부도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만큼 사법시스템과 노하우 수출 등 '한류 4.0' 시대를 열어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달 연하도서(표준협회미디어 간행)로 발간하는 신작 <두줄칼럼>을 소개하자 장내에는 '우와' '이야' 하는 감탄사가 쏟아졌다. 예컨대 '창조란 최초의 생각이다' '직(職)으로 가면 업을 잃고, 업(業)으로 가면 직을 얻는다' '단점 개선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핵심인재란 없다. 인재가 핵심일 뿐이다' 등등 매우 신선하고도 다양한 화두로 참석자들의 사고의 폭과 깊이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㉔

MINI INTERVIEW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Court 4.0' 시대를 맞아 법원은 엄숙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법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반영된 '재판 품질'에 달려 있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법률서비스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임을 깊이 인식하고, 직원 각자 본인이 사법부의 대표라는 자중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주

전 서강대 교수
특허법률사무소 자문역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차 왔다가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교수는 단 순하고 하수는 복잡하다며 'Simple is beautiful'이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말씀은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이는 조직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박선영

행정관(법원도서관 총무과)



'장점을 극대화하라' '달라야 살아남는다' '태어난 미션을 기억하라' 등 오늘 해주신 여러 말씀은 나중에 아이에게 꼭 전하고 싶을 만큼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사기업에서 일하다 대법원으로 이직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정도로 큰 자극이 되었어요.



“피플 퍼스트(People 1st)”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든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이른바 ‘갑질’ 문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갑을 관계에서뿐 아니라 을 사이에서도 유사 갑질이 성행하며, 땅콩 회항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은 회사 내에서도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런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 관계가 주업무인 서비스업에서 더욱 현저하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고객만족(CS)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맹목적인 도입에 있다. 1990년대에 관련 개념이 도입된 이래 현재 국내 경영 현실에서 CS는 하나의 종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손님’이라는 정겨운 단어 대신 ‘고객’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막강한 신분상의 위력 앞에 직원들은 몸을 낮추고 무제한적인 친절을 생산해왔다. 고객만족을 절대가치로 신봉해온 부작용과 후유증은 업종을 불문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차장 안내 직원의 뺨을 때리는 식의 막무가내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조차 직원들은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의 보호는커녕 일방적인 굴종을 강요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봉이 되어버린 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만족도(ESI)는 형편없는 직장이 고객만족도 대상을 수상하는 코미디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각종 평가 시스템이나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고객만족도(CS)를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초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열 받은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계속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불친절이 대명사일 정도로 고객 개념이 취약한 국내 업계에서 서구 CS 이론의 전파가 국내 고객의 지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서비스 품질 체계를 견인해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사업의 팔라이자 오메가인 고객을 만족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월/일 단위로 평가받는 대부분 조직의 고객만족도 담당자나 콜센터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젠 공공 부문까지도 P-CS라 하여 민간 부문 못지않은 수준에 접어든 지 오래다.

사실 직원 개개인이 업무에 필요한 감정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말투, 표정, 몸

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해내야 하는 이들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거나 식욕 등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감정노동자(emotional worker)’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선진 서비스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서 ‘고객(customer)’이란 말은 18세기 유럽의 관세청(customs)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매일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무역업자들로서는 관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업의 흥망이 결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을 상전으로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로 자신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상대라는 뜻에서 ‘고객’이라는 말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전문 서비스 경영 이론은 맹목적인 고객만족은 난센스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 거절도 고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타깃 고객에게 유니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국내 기업들이 ‘블랙 커스터머(black customer)’라 불리는 일명 진상 고객을 다루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기존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고객의 갑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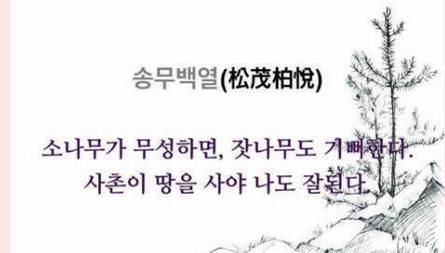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의 성공은 바로 ‘인간존중’이라는 최고의 기업경영 원리에 기인한다. 여기서 그 출발점은 바로 ‘피플 퍼스트(People First)’, 즉 직원존중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은 예외 없이 이 원칙을 경영의 제1조 제1항으로 삼고 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Ray Kroc)의 경영이념 역시 ‘인간존중’이다. 거대 기업 맥도날드의 성공은 바로 이런 원칙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맥도날드 직원들은 그들의 회사를 “사람들이 만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라고 부른다. 업계의 전설로 꼽히는 리츠칼튼 호텔은 경영원칙을 집대성한 핵심 가치로 서비스의 ‘황금표준(Gold Standards)’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우리는 신사,

숙녀를 모시는 신사, 숙녀다”라는 문장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물류 부문의 세계적 거인인 페덱스 창업자 프레드릭 스미스(F. Smith) 회장 역시 일찍이 직원-고객-주주로 이어지는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간파하고, 창업 철학으로 유명한 ‘PSP’ 원리를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최고의 직원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위대한 성공을 일궈냈다. 페덱스는 소유한 항공기만 700여 대에 이르며 하루 400만 개의 소포를 처리하는 거대 기업이다. 365일 그 소포들을 실어 나르는 화물비행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애칭이 바로 직원들의 아이들 이름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자기 자식의 이름이 붙은 비행기를 모는 직원들의 심정은 직원만족이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웨그먼스 슈퍼마켓은 한 술 더 떠 “직원 먼저, 고객은 다음(Employees first, Customers second)”이라는, 우리로서는 입이 벌어질 문구를 내걸고 있다. 직원들이 애견을 데리고 출근하는 구굴이나 식사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SAS 같은 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의 철학은 간단하다. 무엇보다 ‘만족한 직원(people)이 만족한 고객(customer)을 만들고, 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주주(stockholder)를 만든다’라는 최고의 경영 선순환 원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다. 고객이 왕이면 직원도 왕이다. 고객만족을 그토록 강조해온 우리나라에서 그 근간이 되는 직원 존중을 소홀히 해온 결과, 중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직원존중’ 하면 대개 물질적인 보상을 떠올리는데, 사실 물질적인 것이 직원만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recognition)이다. 신뢰와 자부심에 기초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자존심이 유달리 강한 한국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는 결국 직원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직원들의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경영 현장에서 사업의 초기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 직원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품과 서비스는 실패한다. ‘종업원은 최초의 시장이다(People is the first market)’라는 생생한 교훈이 탄생하게 된 이유다.

모든 고객이 왕이 아니듯이 직원 또한 종이 아니다. 고객은 결코 갑이 아니며, 직원 또한 을이 아니다. 서비스란 원래 일방적 거래가 아니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자 쌍방 커뮤니케이션 게임이다. 고객은 웃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직원은 뒤에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경영자의 필수 점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두줄칼럼〉은 국내 최초의 초미니 칼럼이다. 이는 필자가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오랜 세월 숙성시켜온 독창적인 생각창고(House of Thinking)를 풀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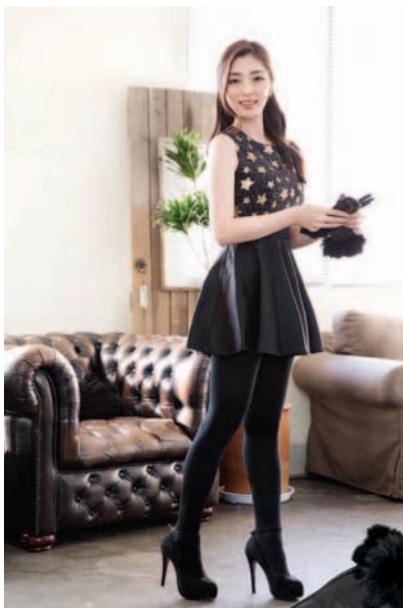
Winter

도시녀,
순백의
눈을 만나다

공은혜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관

도회적인 얼굴, 길쭉한 팔다리에 늘씬한 스타일의 공은혜 실무관은 맑고 깨끗한 흰색 옷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시크한 검정이나 강렬한 빨강이 더 어울릴 듯했지만 막상 화이트 룩을 입자 더욱 밝게 빛나 보였다. 올 연말, 화이트 룩을 입고 싶다면 그녀처럼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글 강나은 · 사진 이성원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Style
Change



정장만이 가득한 직장인의 옷장

공은혜 실무관은 평소 깔끔한 오피스 룩을 즐겨 입는 편이다. 치마 정장이나 원피스가 주를 이루는 그녀의 옷장에는 출근복만 있을 뿐 사복은 거의 없다.

“오피스 룩은 법원 다니면서 입어야 하니까 늘 준비하게 되는데, 캐주얼로 입을 만한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냥 편한 옷을 고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소에 오피스 룩을 입을 수도 없으니까요.”

헤어나 메이크업도 무난한 정도를 유지하는 편이고, 액세서리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을 고집하던 그녀가 꼭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었으니, 순백의 룩이다. 흰 티에 청바지 혹은 올 화이트 정장을 입는 것이 오랫동안 꿈이었다.

“아무래도 흰색 옷은 일상생활에서 입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흰색 하면 청순한 느낌이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날은 공은혜 실무관의 베스트 프렌드인 민사소액과 태민정 실무관도 함께 스튜디오를 찾아 편안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태민정 실무관은 공은혜 실무관의 첫인상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엄청 털털해 놀랄 정도였다고,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했다.

“은혜와는 올해 초에 민사단독과에서 만났어요. 옆자리라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제가 민사소액과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업무 시간에는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같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5월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나가 배우고 있는 테니스는 두 사람에게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이것저것 취미를 많이 가져봤어

요. 수영이나 요가도 했는데 테니스가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공을 칠 때 타격감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찰떡 같은 짝꿍과 함께하니 테니스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더욱 크다.

순백에 도전하다

입사한 지 어느덧 4년 반이 지났다는 공은혜 실무관은 현재 민사단독과에서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재정단독에서 근무하고 있다. 업무가 어렵지는 않지만 늘 안타깝고 위험한 순간을 다루다 보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제가 직접 블랙박스도 확인하는데,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삶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차가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제일 안타까운 사건은 역시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는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 한동안 생각이 많이 나요.”



교통사고전담부로 오기 전 그녀가 있었던 부서는 마약재판부였다. 사진을 볼 때마다 한 편의 느와르 영화를 보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약의 중독성을 무섭도록 깨닫는 시간들이었다.

“마약재판부에 있다 보면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마약을 끊기가 힘든데요.”

늘 이런 사건들을 맡다 보니 삶이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녀는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들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

“제가 첫 발령 이후에 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외롭고 힘들었을 때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신 계장님, 선배님, 동기들이 있어서 법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법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제 곁에 있어주신 분들입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도 한숨을 쉴 때가 많아 걱정을 했던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자 자신감 있는 포즈와 표정으로 모든 스태프를 압도했다. 덕분에 인생 사진이 제대로 찍혔고, 촬영도 수월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색다른 패션에 도전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모든 손가락에 끼는 반지나 볼드한 액세서리도 신기했고요. 흰색 정장이나 흰색 오프숄더 니트도 평소에는 쉽게 도전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입어봤네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차갑지만 쌓인 눈은 솜처럼 포근해 보인다. 공은혜 실무관 또한 처음 봤을 때 도회적인 외모로 조금은 차가워 보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가 그토록 흰 눈 같은 순백색에 끌린 이유가 이 때문은 아니었을까. ☐





지금까지 법원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제 곁에 있어주시는 분들
입니다. ○○

공은혜님을 위한 스타일링 TIP

Fashion



첫 번째, 올 화이트 슈트에 무드 있는 와인 컬러의 힐로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골드 컬러의 링과 이어링을 매치하면 더욱 스타일리시하겠죠?

두 번째, 곧 있을 연말 모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파티 룩입니다. 불링블링한 스랭글 플레어 원피스에 퍼가 믹스된 가죽 장갑을 더해 따뜻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포근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스타일로 여러여러한 화이트 컬러의 오프숄더 니트와 캐주얼한 스키니 진을 코디한 뒤, 스웨이드 소재의 브라운 힐로 여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소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상의에 은근히 보디라인이 드러나는 의상으로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Hair & Make up



전체적으로 피부 톤은 균일하게 맞추고 아이 메이크업은 음영을 주어 너무 강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으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했고요, 헤어는 굵은 웨이브를 넣어 볼륨감을 살리면서도 두터운 이목구비가 부드러워 보이게 했습니다.

tip

워낙 키도 크시고 날씬하셔서 어떤 스타일이든 다 소화하시는 데요, 늘씬한 몸매를 부각하는 코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액세서리나 소품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스타일리시해 보이시겠네요!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아동문학에 ‘장애’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하다

동화작가 고정욱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가방 들어주는 아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일기’..., 한 번쯤 들어봤을 직한 동화 제목이다.

이 동화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동화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동화작가가 바로 고정욱 작가다.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 북한산 3개의 봉우리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카페에서 고정욱 작가를 만났다.

글_허주희 작가 · 사진_장병국

Q 최근 작가님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정욱아, 너는 소중한 아이야’를 펴냈는데요. 그동안 집필한 수많은 동화책 중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은 처음인가요?

네, 270번째 펴낸 책으로 제 이야기를 동화로 쓴 것은 처음입니다. 심지어 이 동화책에는 제가 그린 만화도 삽입되었습니다. 출판기획자가 “그동안 동화를 많이 썼는데 독자들이 작가를 궁금해한다. 작가가 살아온 이야기를 써보자”고 제안했어요. 이 책에는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아가 그래도 자신이 소중한다는 자존감이 있었기에 오늘날 작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작가의 자서전인 셈이죠. 이 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성공한 작가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도전하고 자존감을 가져라, 너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Q 어린 시절부터 작가의 꿈을 키워왔나요?

어릴 적부터 작가라는 꿈을 키우진 않았어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요. 공구나 기계를 만지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과대학 입학이 거절되면서 문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나마 작가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장애로 인해 활동이 제한돼 집안에 주로 있다 보니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것이죠. 유일한 취미 활동이 독서였어요. 집에 있는 책은 물론 학급문고에 있는 책은 모조리 입을 정도로 ‘할자 중독’인 아이였습니다. 이처럼 책을 많이 읽고 ‘장애’라는 고통이 있기에 작가가 될 소양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식이든, 큰 고통을 겪거나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성공한
작가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장애인은 너희보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과 친구가 되면
너희가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Q 작가님은 28년간 270권의 동화책을 집필했는데요,
끊임없이 집필을 이어온 열정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서른 살 때 ‘글힘돋움’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28년간 270권의 책을 썼습니다. 1년에 10권 정도 쓴 셈이죠. 동화,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책을 써왔는데 그 원동력은 아무래도 ‘장애’입니다. 저에게 장애는 아물지 않는 상처예요. 상처를 계속 후벼 파면서 그 고통으로 문학을 양산해내는 것이죠. 과거에 아팠던 일, 어려웠던 일을 찾아내 의미를 부여하며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저 자신을 아동문학에 ‘장애’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장애인을 등장시

킨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화에 장애가 주 소재인 ‘장애아동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든 셈이죠.

**Q 국내 아동문학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화작가’로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동화를 쓰게 된 데는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 계기가 됐어요. 장애인 차별 등이 땅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은데, 어른들은 잘 바뀌지 않잖아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는 동화책에 장애인을 등장시키고 장애인 문제를 드러내면 어떨까.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하고, 결국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개선된 어른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장애인은 너희보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과 친구가 되면 너희가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동화책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나가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Q 그동안 동화작가로서 인세도 기부해왔는데요,
작가의 ‘인세 기부’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니까 말만 앞서서는 안 되겠다,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씩 인세를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일기’의 주인공 이희아양에게 기부한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면서 ‘좋은 일을 하면 더 큰 보상을 받는구나’하고 느꼈죠. 또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1억 원 정도 기부했어요. 그렇게 기부를 통해 좋은 결과가 오고, 사람들도 좋아하니 보람이 큼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으니 뿌듯합니다.

Q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강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연으로 얻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책 쓰기와 달리 강연에서는 어린이들을 만나며 동화작가로서 영감을 얻습니다. 강연 후 어린이들에게 명함을 주고, 아이들이 메일을 보내면 답장을 합니다. 저는 소통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라도 마주치는 가깝고 친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통해 작품 소재도 얻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요즘 세상에 맞는 작품을 구상하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작가, 온 국민이 좋아하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Q 앞으로 동화작가로서 최종적인 꿈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책을 평생 500권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57세로 270권을 썼으니 60세까지 300권을 채

우고 싶어요. 두 번째, 현재 책이 20여 개국에 번역·출간되었는데 앞으로 전세계 100개국에 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은 장애인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서 계속 도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해요. 기차를 타고 오가는 자투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저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한기 때문이지요.

Q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요?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차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법과 원칙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장애인, 노약자)을 위한 배려심 있는 당신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질서를 꼭 지켜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



한반도가 위험하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4 지진은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 지진에 이은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로 인해 포항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 갑자기 일어나는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진에 대비하는 행동지침을 철저히 익혀두자.

글_ 편집부 참조_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EARTHQUAKE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피해사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해 9월 사상 최대 규모인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를 강타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믿음이 부서진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얼마 전 포항에서도 리히터 규모 5.4의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여진이 끊이지 않았다. 이 여파로 다음 날 치러질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긴급하게 일주일 뒤로 연기돼 치러지기도 했다. 건물이 붕괴하고 도로가 파손돼 사람이 다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았다. 실제로 이번 포항 지진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도 큰 피해가 있었다.

이번 일은 이제 지진은 이웃나라 일본의 일만이 아니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낮설었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불안을 대변하듯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진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생존 가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과거 779년 신라 시대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고, 17세기 조선 시대 <승정원일기>에도 울산 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물이 솟구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78년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하면서부터 한반도에 지각 활동이 활발한 활성 단층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진이 그동안 잠들어 있던 예고된 재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반도에서 예견되는 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나, 장소별로 지진에 대비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다. ☐

■ 지진 진동을 느낄 때 기본적인 행동 요령

- ① 지진 진동을 느끼는 동안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몸을 보호.
* 공포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금지한다.
- ② 진동이 그치면 컴퓨터 등의 전원과 사무실 내 전기 차단.
- ③ 문을 열어 탈출구 확보.
- ④ 지진이 일시 멈춘 후 여진이 발생하기 전 비상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장소별 행동 요령

☑ 집 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간다.



☑ 집 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며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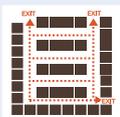
☑ 백화점·마트 안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한다.



☑ 극장·경기장 안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두고 대피한다.



☑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김생민의 영수증〉 올로나, 저축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김생민의 영수증〉이
건드린 서민들의 소비정서



미래가 중요할까, 아니면 현재가 중요할까.
한때 열풍처럼 분 ‘올로’ 트렌드는 ‘단 한 번뿐인 삶’을
내세우며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가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올로가 엉뚱하게 소비문화로 오독되면서
최근에는 ‘아껴야 잘 산다’는 서민적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있다.

글_정덕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올로 외치던 대중, 〈김생민의 영수증〉에 주목하다

‘You Only Live Once!’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이른바 ‘올로(YOLO)’가 말하는 가치는 우리처럼 개발시대를 거쳐오며 ‘아껴야 잘 산다’라는 가치가 뿌리 깊게 내린 삶에서 오히려 어떤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무언가를 아끼며 행복을 미래로 유예하는 삶이 결국은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집을 사기 위해 매달 적지 않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며 근근이 30여 년을 버텨내야 한다는 서민들이 처한 현실을 떠올려보면, ‘왜 그래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한 흡수자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결국 인생 전체로 보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로란 훨씬 반대급부적인 소비 풍조로 다가온 면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현재를 즐기는 삶이 마치 ‘지금 사고(하고) 싶은 걸 사라(하라)’는 것으로 들린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와는 반대의 이야기를 건넨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고 커다랗게 적힌 문구가 눈에 띄는 스튜디오에서 김생민은 옆자리에 앉은 김숙과 송은이에게 지독할 정도로 아끼는 ‘짠돌이’의 삶을 역설한다. 누군가의 영수증을 받아 ‘스튜핏’과 ‘그웬잇’을 외치며 요리조리 소비 패턴을 쫓아보는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양 공감을 주고, 거기에 주석을 다는 김생민의 이야기는 웃음과 함께 ‘아끼는 삶’이 여전히 좋은 미래를 담보한다는 희망을 전해준다. 이것이 가능해진 건 김생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연예인이



김생민이 '전자소송'에
울트라 그레이트를 외친 이유는?
유튜브에서
'김생민 전자소송' 을 검색해보세요!

지만 셸리리맨처럼 오랜 시간을 방송가에서 버텨낸 삶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김생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을 터트리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 자체에 공감한다. 사실 여기저기서 ‘올로’를 외치며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가능한 말이다. 올로 열풍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 대중은 그래서 김생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김생민의 영수증〉에 담긴 저축과 올로의 양면

하지만 그렇다고 〈김생민의 영수증〉이 아끼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아니다. 물론 김생민은 진짜 짠돌이로서 아끼는 다양한 노하우를 ‘저게 진짜 그가 했던 일들일까, 아니면 웃기기 위해 살짝 과장된 이야기일까’ 궁금할 정도로 쏟아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옆자리에 앉은 김숙과 송은이는 그 대척점에서 사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소비 욕망’을 드러낸다. 김생민이 저축에 대해 ‘그웨잇’이라고 외치고 소비를 ‘스튜핏’이라고 할 때, 김숙과 송은이는 여전히 올로가 얘기하는 ‘소비 그웨잇’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묘하게 저축과 올로 사이의 균형점 같은 것을 만든다.

여기서 〈김생민의 영수증〉은 솔루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힘을 발휘한다. 그가 전하는 해법들은 일견 공감 가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솔루션일 수는 없다는 걸 김생민도, 송은이와 김숙도 알고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건드리는 것은 그런 솔루션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려니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다고 현재를 즐기자니 미래가 불안한 서민들의 그 양가적 감정을 모두 공감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저축인가, 소비인가

〈김생민의 영수증〉은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는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꽤 비싼 한약을 구입하지만 그리고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야식을 먹는 사람이나,

돈은
안 쓰는
것입니다

VS

빵집을 자주 들르면서 굳이 토스터기를 사는 사람이 보여주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의 모습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공감하는 시간이다.

〈김생민의 영수증〉이 그 짝막한 방송을 통해서도 이토록 대중의 열광을 만들어낸 건 바로 지금 서민들의 소비 정서의 중심에서 있어서다.

저금리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대중에게 저축이나 적금 같은 단어들은 점점 잊히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아낀다고 해도 목돈을 만드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저금리로 돈을 쉽게 빌려 쓰다 보니 ‘올로’의 본질은 사라지고 소비적인 측면만 강조된 면이 있다. 무조건 짠돌이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래는 없다’라는 식의 무분별한 소비 풍조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



COURT NEWS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017. 11. 7.(화)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법원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민원인 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초빙된 이아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는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각 처리단계별 의무사항, 개인정보 침해유·노출 대응 방안’에 대해 타기관 등에서 실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직

원들도 업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을 공감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 -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익)은 2017. 11. 13.(월) 관내 12개 고등학교(14팀), 약 19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형사모의재판을 통한 사건해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연대회는 A조 7팀(선덕고 B팀, 휘봉고, 혜성여고, 청원여고, 선덕고 A팀, 용화여고, 서울사대부고), B조 7팀(면목고, 혜화여고, 신현고, 창동고, 혜성여고, 서라벌고, 누원고)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장은 개회식에서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

는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앞서 2017. 10. 23.(월)에 우리 법원 법관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각 팀별 멘토를 지정하였고, 이렇게 지정된 각 팀의 멘토들은 시나리오 검토, 학생들의 지도 등 멘토링을 통해 경연 때 참가 학생들이 실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른 팀 재판장이 입장 시에 모두 기립하고, 상대팀의 경연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실제 재판에 못지 않은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연을 마친 후에는 A조 심사위원(오재성 수석부장판사, 윤승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북부협의회 회장, 김현규 총무과장)과 B조 심사위원(박이규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북부협의회 총무, 이건 형사과장)의 심사를 통하여 대상은 신현고, 우수상은 혜성여고, 청원여고, 장려상은 용화여고, 창동고, 서라벌고가 차지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오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참가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다면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심사평을 마쳤습니다.

제22회 전국법원 등산대회



따뜻한 날씨, 오색빛깔 단풍, 그리고 전국 법원가족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힐링과 화합의 한마당 대잔치였습니다.

2017. 11. 4.(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숲쉼터 잔디광장 및 흑성산에서 제22회 전국법원 등산대회(법원행정처 주최, 대전고등법원 주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장소인 천안 흑성산은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을 품고 있는 명산으로 특히 독립기념관을 둘러싸고 있는 단풍나무숲길은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장소, 화창한 날씨, 고운 단풍, 따뜻한 전국 법원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오전 09:30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님의 환영사, 천안지원 체조팀의 멋진 체조와 함께 제22회 전국법원 등산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22회 전국법원 등산대회는 청명한 가을 하늘, 따

인천지방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 초·중·고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화 전파'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참하여 이 대회를 후원하였습니다. 경연 주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부문 "만약에 로봇이 재판을 한다면" 또는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면 법원은 필요 없을까", 고등학생 부문 "형벌의 차등화" 또는 "어론과 재판"이었고, 경연 주제를 선정한 판사님들을 심사위원단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법원장은 시상 후 이어진 격려사를 통해 "수상자를 비롯한 참가자 모두가 법원과 관련된 주제로 참신하면서도 논리적인 에세이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좀 더 법원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상식 후 단체 및 개별 기념촬영을 하고, 이어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와 함께 에세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 소감, 각 경연주제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법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인욱)은 2017. 11. 3.(금) 오전 11:00 8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및 초·중·고 부문 수상자 8명(각 부문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초·중·고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9/13)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생활 속에서 법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과 우리 생활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법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5개 지방 언론사(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의 '올바른 법문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 원고 마감 : 수시
-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lList.work?gubun=7>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 정유진 실무관 수원지방법원
- 최덕상 사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정민창 실무관 의정부지방법원
- 정동혁 실무관 전주지방법원
- 조연정 실무관 영월지원



**지난호 퀴즈
정.답.**



**다른
그림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동산등기조사과 김희연 등기관

등기관님을 칭찬합니다

어려운 등기라서 18시 퇴근시간까지 접수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찾아갔는데 서류 접수부터 작성 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주셔서 퇴근 전에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등기가 늦어지면 힘들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민원인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을 찾아가면 등기관님들이 서류 준비부터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친절하시지만 특히 저 때문에 퇴근도 늦게 하시고 고생하신 김희연 등기관님이

최고입니다. 김희연 등기관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등기 접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길 ○○

